

- 때 : 2011년 5월 13일(금) 오후 2시~6시
- 곳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 주최 : 신흥무관학교 100주년 기념사업회
- 후원 : 국가보훈처

식순

I부

사회 : 방학진(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

개회사 : 전기호(경희대학교 명예교수)

축사

기조강연 : 서중석(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

II부

사회 : 허남성(한국위기관리연구소 소장)

:: 제1주제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와 신흥무관학교-교육과정과 군사간부 양성을 중심으로**

· 발표 : 김삼웅(전 독립기념관 관장)

· 토론 : 박환(수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 제2주제 **1910년대 독립운동기지 건설과 신흥무관학교**

· 발표 : 윤경로(전 한성대학교 총장)

· 토론 : 김희곤(안동대학교 사학과 교수)

:: 제3주제 **1920년대 이후 독립군 군사간부 양성-신흥무관학교와 관련지어**

· 발표 : 한시준(단국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 토론 : 한상도(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 제4주제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에서 해방 후 대한민국 국군의 탄생까지의 역사적 맥락**

· 발표 : 한용원(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

· 토론 : 노영기(서울대학교 규장각)

:: 종합토론

· 사회 : 허남성(한국위기관리연구소 소장)

폐회 및 만찬

신흥무관학교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

때 _ 2011년 5월 13일(금) 오후 2시~6시

곳 _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주최 _ 신흥무관학교 100주년 기념사업회

후원 _ 국가보훈처

모십니다

올해는 일제강점기 최대의 항일무장투쟁 기지로서 3,500여 명의 독립투사를 배출한 신흥무관학교가 설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항일애국지사들은 경술국치를 당한지 1년도 안된 1911년 6월 10일 서간도 유하현 삼원포 추가가 마을의 허름한 옥수수 창고에서 신흥강습소를 세웠습니다. 일제와 중국 관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강습소'란 이름을 달았지만 명실상부한 독립운동의 요람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후 신흥무관학교는 갖은 역경을 뚫고 10여 년에 걸쳐 수많은 전사들을 길러냄으로써 항일운동에 불멸의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신흥무관학교가 배출한 인재들은 청산리대첩을 비롯한 독립전쟁에서 기간요원으로 참전하여 혁혁한 무훈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비롯 조선혁명군·의열단·한국독립군·고려혁명군·한국광복군 등 독립전쟁 각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독립운동사에 있어 빛나는 금자탑이라 할 신흥무관학교가 오늘날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임을 그 누구도 부정하기 힘들 것입니다. 모든 기득권과 부귀영화를 버리고 이역 만주 땅에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뜻은, 이름 그대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 민족과 국가를 부흥시키자(新民國)'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기념사업회는 한국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이라 할 선열들의 헌신을 널리 알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아래와 같이 학술회의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 4. 26.

신흥무관학교 100주년 기념사업회

오시는 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1, 6번 출구



신흥무관학교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

신흥무관학교와 항일무장독립운동